



우린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 (7단계_중학)

단비청소년 | 창신강 지음 / 주수련 옮김



표지 탐색하기

<우린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를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우린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를 보면, 어떤 이야기일 것 같은가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책 뒷표지에 쓰여 있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나는 기억한다. /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시간, 그리고 기억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음을...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잘 두드러지지 않거나 두드러지면 문제로 여겨지는 그런 아이들의 내면과 주변을 섬세하게 그려낸 창신강 대표작. 모든 세대가 함께 읽어야 할 가슴 뭉클한 이야기 12편이 펼쳐진다.

어른이 되어 버린 지금 / 가슴 저편에 서 있는 아련한 기억들이

이제는 아픔이 아닌 멋진 추억들로 남아 있음을... / 나는 기억한다.

① 이 책의 이야기 12편은 어떤 아이들의 내면과 주변을 그려내고 있나요?

⇒

② 어른이 되어 버린 '나'의 기억들은 이제는 무엇으로 남아 있나요?

⇒



우린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 (7단계_중학)

단비청소녀 | 창신강 지음 / 주수련 옮김



어휘력 쑥쑥 키우기

<우린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두 사람은 며칠 동안 계속 말 없이 냉랭한 상태로 지냈다.

• 흔들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체된 눈빛…….

• 학교를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나는 학교라는 곳에 대해 다시금 고찰해 볼 수 있었다.

• 선생님의 흙빛 얼굴을 만져 보는 그 붉고 통통한 손은 선생님의 파리한 모습과 너무도 크게 대조되었다.

• 저 망원경을 든 여자아이는 이 겨울에 또 어떤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될까?

(나) • 그날 저녁, 엄마는 저녁을 차리면서 유난스레 말이 많았다.

“㉠□□□□이지. 다행이고말고. 만에 하나 차가 전복되더라도 했어봐…….”

• 나는 행동으로 보여 줬지. 그 녀석의 배에 주먹을 내리꽂았어. 그다음은 ㉡□□□□였지. 그렇게 우리는 창고 뒤 공터에서 소리 소문 없이 싸움을 이어갔어.

1) (가)의 밑줄 친 낱말의 기본형 뜻으로 알맞은 것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

냉랭하다 - () 정체되다 - () 고찰하다 - ()

대조되다 - () 기이하다 - ()

① 기묘하고 이상하다.

② 서로 달라서 대비가 되다.

③ 태도가 정답지 않고 매우 차다.

④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다.

⑤ 사물이 발전되거나 나아가지 못하고 한자리에 머물러 그치게 되다.

2) 다음에 제시된 뜻을 참고하여 (나)의 빈칸 ㉠, ㉡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 : 아주 다행함.

㉡□□□□ : 강물이 빨리 흘러 천 리를 간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 거침없이 빨리 진행됨을 이르는 말.



우린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 (7단계_중학)

단비청소년 | 창신강 지음 / 주수련 옮김



어휘력 쑥쑥 키우기

<우린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 그렇다고 뭔가 크게 실패하거나 좌절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20년의 세월 동안 열 개가 넘는 ()을 전전해도 딱히 성공했다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 그리고 앞서 투자한 자금 ()을 메꾸기 위해 그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
 - 어른들의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은 심해지기만 했지…….
 - 마치 정세가 불안정한 어느 위험한 국가가 ()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듯한 표정이었다.
 - 기슭에 이르러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을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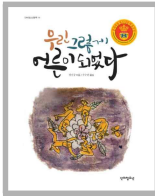
(나) 할아버지의 머리는 하얀 눈이 내려앉은 듯 백발이 ㉠성성했다. 울안의 닭과 오리, 거위, 개들도 풀밭에 ㉡소담스럽게 피어 있는 꽃들처럼 시끌벅적 요란한 소리를 내며 언웨이를 맞아 주었다.

1) 다음 제시된 뜻을 참고하여 (가)의 각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쓰세요.

- ① 직종 : 직업이나 직무의 종류.
- ② 줄행랑 : '도망'을 속되게 이르는 말.
- ③ 손실 : 잃어버리거나 축나서 손해를 봄. 또는 그 손해.
- ④ 편두통 : 머리 혈관의 기능 이상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는 발작성의 두통.
- ⑤ 생화학 : 생물체의 구성 물질 및 생물체 안에서의 화학 반응 따위를 해명하고, 생명 현상을 화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2) (나)의 밑줄 친 낱말 ㉠~㉡의 기본형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은 것입니다. 알맞게 짝을 지어 기호를 쓰세요. ㉠성성하다 - (), ㉡소담스럽다 - ()

- ㉠ 생김새가 탐스러운 데가 있다. ㉡ 머리털 따위가 희끗희끗하게 세다.



우린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 (7단계_중학)

단비청소년 | 창신강 지음 / 주수련 옮김



샤오이 이야기

<우린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런 눈으로 볼 것 없어. 수십 년간 오른손으로만 하다가 이렇게 왼손으로 하는 법을 익히는 건 다른 쪽 뇌를 발달시키는 거나 같은 거야. 아주 유익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로부터 열흘 정도 지나고, 샤오이는 아빠가 그 사고로 손가락 한 개를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오른손 집게손가락이었다. 아빠가 자기 눈을 피해 등 뒤로 손을 감추는 것을 보고 샤오이는 무언가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외쳤다.

"숨기지 말고 저한테 보여 주세요! 아빠 손, 저한테 보여 달라고요!"

(나) 그래서 샤오이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 아빠의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유별나게 좋아하던 어느 여자아이의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매우 길고,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묘사되었다. 마지막에 여자아이가 아빠의 집게손가락을 더는 볼 수 없게 된 대목에 이르러 이야기는 끝을 맺었다. 샤오이의 표정은 담담했다. 오히려 이야기를 듣는 페이페이와 자오자오의 눈가가 붉어졌다. 두 친구는 눈물을 닦고 샤오이에게 물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읽은 거야? 우리도 그 책 좀 보여 줘!

샤오이가 대답했다. 어떤 이야기들은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아 두고 잊지 못한 일들이라고…….

1) (가)에 나타난 ‘아빠’와 ‘샤오이’의 말과 행동을 정리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① **아빠** : 수십 년간 오른손으로만 하다가 _____



② **샤오이** : 아빠가 그 사고로 _____

2) (나)에서 ‘샤오이’가 꺼냈던 또 다른 이야기인 ㉠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쓰세요.

⇒



우린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 (7단계_중학)

단비청소년 | 창신강 지음 / 주수련 옮김



텐양 이야기

<우린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선생님, 선생님한테서 정말 무슨 향기가 나요."

담임선생님은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바로 대답했다. / "풀 향기일 거야."

"풀 향기요?" / "선생님은 집에서 풀을 기르거든." / "풀을 기른다고요?"

"응, 선생님은 풀이 좋아. 가끔 마음이 심란해서 물 주는 것을 깜빡 잊어도 풀들은 잘 자라거든. 결코, 주인을 원망하지 않고……." / "풀을 어디에서 길러요? 선생님 집은 7층이잖아요." / "베란다에. 베란다에다 심고 길러."

(나) 텐양은 또다시 풀이 보고 싶어졌다. 선생님의 베란다에서 자라고 있던 그 풀들이 다시금 생각났다. / 이후에도 담임선생님은 풀을 보고 싶어 하는 텐양을 세 번 더 초대했다. 선생님과 텐양은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풀들은 그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곁을 조용히 지켰다.

"저한테서는 언제쯤 풀 향기가 날까요?" / 텐양이 선생님한테 물었다.

"풀 향기는 말을 수 없는 거야. 네가 향이 난다고 느끼면 향이 나는 거고 향이 안 난다고 느끼면 못 느끼는 거야."

1) (가)에서 '선생님'이 자기 집의 베란다에서 풀을 심고 기르는 이유를 쓰고, 이러한 '풀 향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2) (나)에서 '선생님'이 '텐양'에게 '풀 향기'는 말을 수 없다고 말한 이유를 쓰세요.

⇒



우린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 (7단계_중학)

단비청소년 | 창신강 지음 / 주수련 옮김



천국의 침실에도 비가 새다

<우린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학교를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나는 학교라는 곳에 대해 다시금 고찰해 볼 수 있었다. 학교는 마치 큰 솥단지 같은 곳이다. 불 위에 올려놓고 약한 불로 종일토록 끓여 본래 각기 다른 색깔과 맛을 지니고 있던 것들을 모두 한 가지 같은 맛으로 만드는 곳. 한 번 그 안에 들어가면 몇 년을 그렇게 끓이니 맛이 모두 똑같이 변하지 않으면 이상한 노릇이었다. 하지만 변하기 전에 솥단지를 떠나 본래의 색과 맛을 완전히 잃지 않은 몇몇 친구들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나) "학교 성적은 계속 안 좋았어. 고 3이 다 되어갈 무렵 내 성적은 반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었지. 우리 담임선생님이었던 천 선생님도 나를 불러 몇 차례나 상담했어. '타오청, 너 계속 이러다간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아!' 나는 속으로 외쳤어. '저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 안했는데 실패한 인생이라뇨? 제겐 아직 대학이 있고, 이후에는 사회로 나갈 거라고요!' 매번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나면 두통이 시작됐어. 이틀연속으로. 그러면 또 수없이 두통약을 삼켰지. 그리고 하루 종일 혼수상태에 빠져 못 깨어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1) (가)에서 '나'는 '학교'라는 곳에 대해 다시금 고찰해 보니 마치 큰 솥단지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2) (나)에서 '타오청'이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나면 두통이 시작된 이유를 쓰세요.

⇒



우린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 (7단계_중학)

단비청소년 | 창신강 지음 / 주수련 옮김



잠 못 들던 긴긴밤

<우린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방문을 열고 나온 라이커의 눈에 아빠 앞에 놓인 시험 성적표가 들어왔다. 물론 더성이 해준 가짜 사인도 고스란히 보였다.

"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설명 좀 해 보라."

라이커는 거짓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다. / "반 친구가 대신해 준 거예요."

"너 내 아들 맞니? 정말 간도 크구나. 난 네가 내 아들인지 몰라볼 것 같다."

"저도 이런 짓을 한 저 자신이 싫어요." / "아빠, 엄마가 널 위해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니? 네가 조금이라도 네 부모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넌 지금 당장 나가 죽어도 싸, 이 녀석아!"

(나) "아버님의 언어 능력은 시간이 좀 지나야 회복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끝까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빠가 퇴원하던 날, 라이커는 침대에 앉은 채 한 손을 들어 문 입구에선 자신을 가리키는 아빠의 모습을 보았다. 아빠는 어눌한 목소리로 말했다.

㉠ "나에겐 중학생, 중학생..... 아들이 있다고....." / 말을 마친 아빠의 입가에서 침이 흘렀다. / 라이커는 건딜 수 없는 심정으로 아빠의 그 손을 꼭 붙잡았다.

1) (가)에 나타난 '라이커'와 '아빠'의 말을 정리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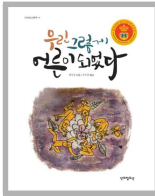
① 라이커 : 아빠 앞에 놓인 시험 성적표를 보고, _____

⇔

② 아빠 :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보라 했고, _____

2) (나)에서 '아빠'가 '라이커'를 가리키며 말한 ㉠과 관계 깊은 말을 (가)에서 찾아 쓰세요.

⇒



우린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 (7단계_중학)

단비청소년 | 창신강 지음 / 주수련 옮김



달려라, 쑤단

<우린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쑤단, 너 살찐어." / "살찐 거야."

사춘기 여자아이들이 으레 그렇듯 쑤단도 얼마 전까지 살에 신경 쓰고 음식도 조절해서 먹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기 시작했다. 이 우울함 속에서 위까지 학대하면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나) 한번은 쑤단이 쉬만을 향해 말했다.

"너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줘."

쉬만은 불안한 눈빛으로 쑤단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친구인가?" / 쉬만은 생각에 잠겼다가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다.

"그렇다고 봐야지." / "솔직하게 대답해 줘서 고마워." / 쑤단은 다시 물었다.

"나랑 친구 관계를 끊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어?"

쑤단은 쉬만이 한순간 시선을 피하는 것을 보았다. 쉬만은 쑤단이 이미 자신의 속을 꿰뚫어 본 것 같아 이렇게 대답했다. / "있어." / "이번에도 솔직하게 말해 줘서 고마워."

이번에는 쉬만이 쑤단에게 물었다.

"그런데도 왜 내가 계속 네…… 친구로 있는지, 그건 안 물어?"

"방금 너한테 물은 두 가지 질문에 내가 솔직하게 답해 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해."

1) (가)에서 '쑤단'이 '쉬만'에게 살찐 것이라고 말한 이유를 파악하여 쓰세요.

⇒

2) (나)에 나타난 '쑤단'과 '쉬만'의 대화를 정리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① 쑤단 : 쉬만에게 우리는 친구냐고 물었고, _____
_____, 쉬만의 대답을 듣고 _____

② 쉬만 : 쑤단의 질문에 _____
_____, 그런데도 _____



우린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 (7단계_중학)

단비청소년 | 창신강 지음 / 주수련 옮김



해면은 날카롭다

<우린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젖은 신문지를 만져 보면서도 귀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그때,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시계 소리처럼 규칙적인 소리였다. 똑, 똑……. 만약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이 아니었다면 듣지 못했을 작은 소리였다. 귀귀는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마치 지금 자신과 이 방이 공포 영화의 한 장면 속에 있는 것만 같았다.

겁에 질린 귀귀는 고개를 치켜들고 천장 전체를 훑어보았다. 그러다 침대 위쪽 천장에 더욱 큰 달걀 무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달걀은 이미 깨져 물이 아래에 있는 침대로 떨어지고 있었다. 똑, 똑……. 소리는 바로 여기서 들리는 소리였다.

"물이 떨어져요!"

(나) "해면은 날카롭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아저씨는 해면이란 물건의 특성이 참 좋아. 겉보기에는 폭신하고 부드러워지만 일단 물속에 넣으면 많은 양의 물을 머금어. 그 밖에도 다른 물건이 대체할 수 없는 여러 용도로 쓰이고……. 아, 우선은 여기까지만 말할게. 이거 장거리 통화라서. 그럼 이만 끊는다."

귀귀는 좀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다.

1) (가)에서 '귀귀'에게 벌어진 일을 정리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① 젖은 신문지를 만져 보면서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하기만 했고, _____



② 겁에 질려서 고개를 치켜들고 천장 전체를 훑어보았더니 _____

2) (나)에서 '아저씨'가 좋아하는 '해면'이란 물건의 특성을 쓰세요.

⇒



우린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 (7단계_중학)

단비청소년 | 창신강 지음 / 주수련 옮김



정답과 해설

1쪽	1) (예)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다룬 이야기일 것 같다. 2) (예) 표지는 이중섭의 ‘꽃과 노란 아이’라는 그림이다. 탐스럽게 활짝 핀 커다란 꽃 주위를 다섯 아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동그랗게 에워싸고 있고, 오른쪽에 큰 나비가 있다. 3) ①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잘 두드러지지 않거나 두드러지면 문제로 여겨지는 그런 아이들 ② 아픔이 아닌 멋진 추억들
2쪽	1) ③, ⑤, ④, ②, ① 2) ㉠ : 천만다행, ㉡ : 일사천리
3쪽	1) 직중, 손실, 편두통, 생화학, 줄행랑 2) ㉠-㉢, ㉡-㉣
4쪽	1) ① 왼손으로 하는 법을 익히는 것은 아주 유익한 일이라고 말했고, 샤오이의 눈을 피해 등 뒤로 손을 감췄음. ②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빠에게 손을 숨기지 말고 자신한테 보여 달라고 말했음. 2) 마음속에 담아 두고 잊지 못한 일들임.
5쪽	1) (예) 선생님은 가끔 마음이 심란해서 물 주는 것을 깜빡 잊어도 잘 자라고, 결코 주인을 원망하지 않는 풀이 좋다고 했다. 나도 신선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는 풀 향기를 좋아하지만, 선생님처럼 집의 베란다에서 풀을 기르는 것은 별로라고 생각한다. 2) 텨양이 향이 난다고 느끼면 나는 것이고 향이 안 난다고 느끼면 못 느끼기 때문에
6쪽	1) (예) ‘나’는 학교가 마치 큰 솥단지처럼, 학생들을 불 위에 올려놓고 약한 불로 끓여 본래 각기 다른 색깔과 맛을 지니고 있던 것들을 모두 한 가지 같은 맛으로 만드는 곳이라고 했다. 학교가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만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2) 선생님이 계속 학교 성적이 반에서 꼴찌가 되면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된다고 말해서
7쪽	1) ① 반 친구 더성이 가짜 사인을 대신해 준 것이라고 했고, 자신도 이런 것을 한 자신이 싫다고 말했음. ② 라이커가 자신의 아들인지 몰라볼 것 같다고 하며, 부모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냐고 말했음. 2) “난 네가 내 아들인지 몰라볼 것 같다.”
8쪽	1) 이 우울함 속에서 위까지 학대하면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서 2) ① 자신과 친구 관계를 끊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냐고 물었고, / 솔직하게 대답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음. ② 친구라고 대답했고, 친구 관계를 끊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 왜 자신이 계속 친구로 있는지 안 물어보냐고 말했음.
9쪽	1) ① 야심한 시간에 방 안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작은 소리 때문에 무서워지기 시작했음. ② 침대 위쪽 천장에 있는 큰 달걀 무늬에서 물이 나와 아래에 있는 침대로 떨어지고 있었음. 2) 걸보기에는 폭신하고 부드러워지만 일단 물속에 넣으면 많은 양의 물을 머금고, 그밖에도 다른 물건이 대체할 수 없는 여러 용도로 쓰이는 것